



 <p>중국전문가포럼</p> <p>http://csf.kiep.go.kr/</p> <p>2019. 03. 08.</p>	<p>「이슈&트렌드」</p> <p>베이징 서비스업 3차 대외개방조치의 주요내용</p> <p>작성 김주혜 연구원(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p>
------------------------------------------------------------------------------------------------------------------------------------------------------------------------------------------	----------------------------------------------------------------------------------------------------------------

- 2019년 2월 베이징시 정부는 상무부와 공동으로 중점 서비스 영역에 대한 3차 외국인 투자 개방 조치를 발표함.¹⁾
- 베이징은 2015년 중국 서비스업 개방 확대의 첫 번째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서비스업의 진입규제 완화와 관리·감독 체제 개혁을 골자로 한 시범 정책을 추진해 왔음.
 - 특히 두 차례에 걸쳐 △과학기술 △인터넷·정보 △문화·교육 △금융 △비즈니스·관광 △건강·의료 서비스를 포함하는 6대 영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개방 조치를 발표하고 중점적으로 시행
 - 3차 개방 조치에는 외국인 투자 허용, 투자비율 제한과 경영 자격·범위 제한을 완화하는 14개 조치가 포함되었으며, 향후 3년간 시행될 예정임.
- 이번 조치에서는 △관광 △통신 △의료 등 일부 분야에서 자유무역시험구(FTZ)²⁾의 개방 조치에 준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이 이루어진 것이 특징임.
- 베이징에 설립된 외상 독자 여행사에 대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아웃바운드 관광 업무를 허용 하였는데, 동 조치는 상하이 FTZ에서도 많은 제한을 두고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임.
 - 상하이 FTZ에서는 2019년까지 시험구 내 홍콩·마카오 자본의 독자 여행사 3곳에 한해 아웃바운드 업무를 승인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³⁾
 - 상하이 FTZ의 시범사업 시행 이후, 중국 최초로 홍콩 독자기업인 완칭 상하이 여행사 유한회사(万程上海旅行社有限公司)가 아웃바운드 업무를 승인받음.
 - 또한 3차 개방 조치에서 처음 포함된 인터넷·정보 서비스 분야의 경우 일부 부가통신서비스 업무에 대한 외자 비율 제한을 철폐했는데, 이는 FTZ 개방 내용에 준하는 조치임.
 - 베이징에서는 허베이와 텐진까지 지역 범위를 확대하여 ‘의료기기 등록인 제도’⁴⁾를 추진할 방침임.

1) 2019년 2월 22일 국무원에서는 베이징시 정부와 상무부가 제출한 「베이징시 서비스업 개방 확대 시범 정책 사업 방안 전면 추진(全面推进北京市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工作方案)」과 「베이징시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지역의 새로운 개방 조치(全面推进北京市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开放措施)」를 승인함.

2) 자유무역시험구(Free Trade Zone): 자유무역시험구는 중국에서 서비스 분야 외국인 투자 개방도가 가장 높은 구역임. 상하이 외 12개 지역에 구축되어 대외개방 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왔고, 서비스업의 투자유치와 제도 혁신을 중점 추진하고 있음.

3) 「上海自贸区:首家经营出境游的外商独资旅行社」(2018. 4. 12), 邮轮参考.

4) 의료기기 등록인 제도(医疗器械注册人制度): 제도 시행 전 의료기기 등록인(의료기기 등록증 취득자)은 반드시 본인 소유의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위탁 생산 시에는 의료기기 등록인과 위탁 생산자 모두 의료기기 등록증(医疗器械注册证)과 생산허가증(生产许可证)이 필요했음. 제도 시행 후 의료기기 등록인이 의료기기 등록증만을 보유한 상태로, 조건에 부합하고 생산능력을 보유한 기업에게 생산을 위탁할 수 있게 되었음. 자료: 「昨天! 国务院重大批复, 医械行业颠覆性变革将加速」(2019. 2. 22), 赛柏蓝器械.

- 상하이·톈진·광둥에서는 각 지역에 설립된 FTZ를 중심으로 행정구역 내에서 ‘의료기기 등록인 제도’를 시행 중이고, 베이징에서는 역내 의료기기 등록인이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허베이와 톈진 지역의 의료기기 생산 업체에 제품 생산을 위탁할 수 있음.

표 1. 베이징 서비스업 3차 주요 개방조치

중점영역	세부 업종	기존 제한내용	개방조치
비즈니스 · 관광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	-[중국 전체] 외국인 투자 여행사는 중국 내 아웃바운드 관광 업무가 제한됨. -[FTZ] 중외합자여행사에 대한 아웃바운드 업무 허용(대만 제 외). 또한 상하이 FTZ에서는 별도로 2019년까지 홍콩 및 마카 오 자본의 독자 여행사 3곳에 한해 아웃바운드 업무를 허용하 는 별도의 시범사업을 진행 중	-베이징에 설립된 외상독자여행사는 중국인 대상 아웃바운드 관광업무 가능(대만 제외)
인터넷 · 정보	정보전송· 소프트웨어 및 경보기술 서비스	-[중국 전체] 통신회사의 경우 중국이 WTO 가입 시 개방을 약 속한 통신 업무에 한하며, 부가 통신업무는 외자 출자비율이 50%를 넘을 수 없고(전자상거래 제외), 기초 통신업무는 중국 측 다수 자본이어야 함. -[FTZ] 부가 통신업무 중 저장·전송류 업무, 국내 다자간 통 신서비스 업무, 인터넷 접속 서비스 업무(사용자의 인터넷 접 속 서비스 제공에 한함), 정보 서비스 업무, 콜센터 업무의 외자 비율 제한 철폐	-베이징시 서비스업 종합 시범구 및 시범 단지 내에 한함. -데이터 저장·전송류 업무, 국내 다자간 통신서비스 업무, 인터넷 접속 서비스 업 무(사용자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에 한함) 등 3개 업무의 부가 통신업무 외자 비율 제한 철폐
건강 · 의료	위생 및 사회사업	-[FTZ] 상하이, 톈진, 광둥에서는 FTZ를 중심으로 각 지역 범 위 내에서 의료기기 등록인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	-의료기기 등록인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베 이징시 의료기기 등록인이 지정지 지역 의료 기기 생산 업체에 의료기기 생산 위탁 가능

자료: 国务院(2019), 「全面推进北京市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开放措施」; 发改委、商务部(2018), 「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18年版)」; 发改委、商务部(2018), 「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18年版)」; 工业和信息化部(2014), 「关于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进一步对外开放增值电信业务的意见」; 「昨天! 国务院重大批复, 医械行业颠覆性变革将加速」(2019. 2. 22), 赛柏蓝器械.

□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베이징시는 서비스업 대외개방 조치를 통해 외국의 선진 서비스 기술 및 관리 경험을 받아들임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므로, 우리 기업과 정부는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서비스업 개방 확대 시범 정책을 추진한지 약 3년이 되는 시점인 2017년 베이징의 실제이용외자액(实际利用外资)은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이 중 서비스업이 95.4%를 차지함.⁵⁾

○ 2017년 베이징의 실제이용외자액은 약 232억 달러로 2014년보다 약 1.8배 증가한 수치

- 베이징의 1, 2차 서비스업 개방 조치는 FTZ의 대외개방도를 따라가는 수준이었다면, 이번 3차에서는 일부 조치에서 FTZ보다 선도적인 개방이 이루어졌다는데 의의가 있음.
- 특히 관광 서비스의 경우 중국 내에서 가장 높은 개방조치를 취한 것으로, 베이징시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진출 예정인 한국계 여행사의 경우 해당 개방 조치를 활용하여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5) 「服务业扩大开放3年试点任务基本实施 2017年北京实际利用外资跃居全国首位」(2018. 8. 10), 北京日报.

- 또한 한·중 FTA 후속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독자 및 합자 여행사에 대해 아웃바운드 업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방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한·중 FTA 서비스 무역 양허안에서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분야에 대한 양국의 양허 내용을 비교하면, 중국은 아웃바운드 업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제한 없이 개방함. 